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계 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김정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계순

인 준 서

김계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격특성과 현실대처 태도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서 제공되는 사회지지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129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아가치관(self concept), 삶의 만족도, 성격, 현실대처 태도, 사회지지체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1) 자아강도(Ego strength), 도덕성(Super ego), 대담성(Boldness), 자기통제(Self control)의 성격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신건강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2) 조급성, 책임감, 현실인식의 현실대처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지지체계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신건강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4)북한이탈주민의 성격특징 중에서 자아강도 요인과 태도 중에서 책임감 요인 그리고 사회지지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성격과 태도)과 사회지지체계에 따라 남한사회 적응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 1. 문제의 제기1
-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지원체계3
- 3. 연구의 목적4

II . 이론적 배경

- 1. 적응과 정신건강6
- 2. 성격과 적응8
- 3. 현실대처 태도와 적응10
- 4. 사회지지체계와 적응14
- 5. 자아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적응15
- 6. 연구가설15

III. 연구 방법17

- 1. 연구 대상17
- 2. 측정도구17
- 3. 분석방법20

IV. 연구 결과22

V. 논의 및 제언2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국내 입국 현황	3
<표 2>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23
<표 3> 정신건강,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성격, 현실인식태도, 사회지지체계 간의 상관표	24
<표 4>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26
<표 5>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27
<표 6>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27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대략 1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2004년 말 현재 약 6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에 성공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통일백서, 2005).

이들은 천신만고 끝에 어렵사리 한국에 정착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한국행을 그리며 꿈꾸던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중의 상당수가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윤인진, 1999a; 전우택, 1995, 1997, 1999, 2000;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성, 1997; 전우택, 2000). 현재 북한이탈주민 범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약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실업률(40%)과 학업 중도탈락율(13%)이 일반 국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국정감사 자료, 2004)이라는 보고가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부적응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혜정(1996)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패의 원인을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의 사회체제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등과 병행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인진(1999)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양상과 적응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적당한 직장을 갖고 있어 경제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도 남한 사회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경제적 지원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심리적 측면이 포함된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었고(전우택, 1995)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심리학적 측면의 연구는 자료획득이나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주로 사회부적응 문제 등 실태조사에 국한되었고(윤인진, 1999; 전우택, 1997, 2000; 조영아, 2002) 따라서 기존 연구가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최근에 노대균(2001)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신경증적 경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통제소재를 연구하였고, 김영만(2003)이 북한이탈주민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치관, 고정관념 그리고 귀인양식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차 요인, 특히 심리적 특성에 따라 남한 사회 적응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남한사회 적응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통제소재나 대처방식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따라 적응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노대균, 2001).

전우택(1997)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전체를 좋게 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탈북자의 남한생활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라는 너무나도 낯선 환경에 노출되어 살게 되었는데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개인 특유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여 상이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즉,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사회 적응에 유리할

것이고 만일 남한사회 적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적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사회 적응이 매우 불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지지체계가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고위험집단 선별 및 예방대책 수립과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삼으려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매우 적은 인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3년도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4년도는 전년보다 47.5% 늘어난 1,894명이 입국하여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1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국내 입국 현황(2005년 10월 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89 까지	90-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계
인원	607	34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783	7,087

(2005, 통일부)

사망 및 이민자 수가 285명이며, 국내거주 인원은 6,802명임.

이처럼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던 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관련법규들이 정비되고 각종 정부차원의 조치와 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취해졌다(윤인진, 1999). 현재 통일부 관할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취해지는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하나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3개월 동안 받는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필요한 교육, 취업연계교육 그리고 탈북 및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안정과 정서순화 교육 등이라고 한다(통일부, 2005).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정착 초기에 정착금(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 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사업장을 연결시켜 주는 등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200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면제한 학비의 반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진출 후에는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사회안전망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주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편입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초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행정적 지원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사회·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의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돕고 있다.(통일부, 2005)

3. 연구의 목적

이렇게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윤인진, 1999a; 전우택, 1995,1997, 1999, 2000;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1997; 전우택, 2000). 게다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안정과 정서순화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통일부, 2005)고 하는 하나원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 조사자의 14.3%만이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김정민, 2003).

이렇듯 각계의 다양한 지원체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물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하고 이에 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격(대담성, 도덕성, 자아강도 자기통제)과 현실대처태도(책임감, 조급성, 현실인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사회지지체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적응과 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은 남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적응이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응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볼 수 있다(윤인진, 2000).

사회정책이나 지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역량, 주변의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탈북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일 것이다(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정신건강은 같은 어려움에 대해 통합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여러 위기와 도전을 잘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기회창출의 긍정적 순환을 가져오는 반면에 정신적인 고통은 부적응과 기회의 감소, 정신적 고통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된다(조영아 외, 2005). 특히나 윤인진(1999)의 연구에서 적당한 직장을 갖고 있어 경제적 문제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도 남한사회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결과는 이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심리적 차원의 적응, 정신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수준의 시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 본 연구에서 3년 추적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전우택 등(1997)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총 48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문제에 대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고 한다. 이들은 남한사람들과도 북한이탈주민들과도 사귀기를 힘들어 했는데 남한사람들과는 남한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경제적 열등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삶의 원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배타적 태도 때문이었고, 다른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사회·정치적 사고나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평가하는 배타적 사고, 연좌제와 밀고에 대한 무의적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전우택, 1997), 윤여상(2001)은 사회적응 교육 기간 중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20-30%가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며, 성인 대부분에게서 수면장애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외국 난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고통에 대해 실시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외국난민들의 예에서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난민들의 사회 적응과 심리적, 정신건강적인 측면의 문제였다(August와 Gianola, 1987; Krupinski & Burrows, 1986; 전우택, 1997에서 재인용). 즉 그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난민들의 신체적, 그리고 특히 정신적인 건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정신건강의 측면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성격, 현실대처태도 그리고 사회지지체계와의 관련성에 관해 알아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성격과 적응

정신과 의사였던 Jung은 인간이 같은 사물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며 판단한 것을 각각 다르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개인마다의 일관된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보았다. 즉,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선호방식에 따라 인간의 성격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은 정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아들이거나 반응하는데 있어서 저마다의 선호방식이 있다고 보았다(Jung, 1998). Heuyer(1982)는 성격은 생활환경의 제 조건에 대한 각종 반응을 일으키는 감정적 경향의 전체라고 정의하였고, 강경식(1996)은 개인의 성격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과 상호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Lazarus(1966)와 Lazarus 및 Folkman(1984)의 연구에서 성격이 스트레스의 평가와 대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Rahe(1974)도 스트레스 문제에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는 개인의 성격 형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홍지영, 1995에서 재인용). 또 정양은은 스트레스의 강도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객관적 자극 자체보다는 그 자극을 받는 사람의 심리상태에 달려 있다고 했다(홍지영, 1995에서 재인용). Rebecca L.(2000)는 아동들에게도 성격과 적응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스트레스와 성격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에 특별히 취약한 성격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에 강한 성격도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노대균(2001)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혀냈는데,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이 높고 외적 통제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이 내적 통제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서 정신건강이 열악하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성격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상관이 있다고 예상하고서 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아강도(Ego strength), 도덕성(Super ego), 대담성(Boldness), 자기통제성(Self-control)이 남한사회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 개념은 Cattell의 성격유형에 포함된 개념인데, Cattell은 성격연구에서 성격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언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의 개인적 상태, 역할 그리고 기분을 잠재적 특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Cattell은 성격을 상황적 성격특성과 잠재적 성격특성(source traits)으로 나누고 각 특성에 따라 16가지 요인을 추출해냈다. Cattell이 말하는 16가지 요인이란 냉정성-온정성, 약한 자아강도-강한 자아강도, 복종성-지배성, 신중성-정열성, 약한 도덕성-강한 도덕성, 소심성-대담성, 둔감성-예민성, 실제성-공상성, 순진성-실리성, 편안감-자책감, 보수성-진보성, 집단 의존성-자기 결정성, 약한 통제력-강한 통제력, 이완감-불안감 등이다(김정규, 염태호, 2003).

Cattell의 16가지 성격요인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상관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되는 4가지 요인(자아강도, 도덕성, 대담성, 자기통제)을 선별했다. 이 4가지 성격요인은 성격 척도 개발자이면서 북한이탈주민문제 연구자인 교수님의 자문에 의해 선별되었다.

자아강도가 높은(High Ego Strength)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침착성, 별로 감정 기복이 없는 성숙한 성격 특성을 의미하고 이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나 직업의 목표를 성취하고 난관을 비교적 잘 극복한다(Krug, 1981)고 하며 약한 자아강도(Low Ego Strength)를 가진 사람들은 정서가 불안하고 타인과의 싸움 또는 문제에 말려들기 쉽고(Cattell 등, 1970; Karson & Odell, 1976) 어떤 형태로든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하는 사고유발 경향성이 있다(Krug, 1981)고 한다(염태호, 김정규, 2003).

도덕성(Super ego)이란 내면화된 규범을 따르는 엄격한 성격특성으로서 도

덕성이 높은 사람은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보수적이고 전통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양심과 도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다(염태호, 김정규, 2003; Cattell et al., 1970).

대담성(Boldness)이란 대인관계 행동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태도를 말하는데 대담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남성다운 배짱이 있는 활기찬 특성이 있으며 반대로 소심성(Shyness)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수줍어하거나 소심하고 예민하며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염태호, 김정규, 2003; Cattell et al., 1970).

자기통제(Self Control)는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자기통제 능력을 말하는데 자기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잘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잘하며 약한 통제(Low Control)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며 정서상태가 불안한 특성이 있다(염태호, 김정규, 2003; Cattell et al., 1970).

3. 현실대처 태도와 적응

Thurstone(1931)은 태도란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였고, Krench와 Crutchfield(1948)는 태도를 감정적·동기적 속성을 포함한 신념으로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들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차배근, 1992 재인용). 또 Kartz와 Scotland(1959)는 태도란 한 대상물 또는 상징에 대해 특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개인들의 경향이라고 했으며, Fishbien과 Ajzen(1975)은 태도란 어떤 주어진 대상물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양태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기존 요인이라고 하였다(이민영, 1999 재인용). 또 Krueger와 Reckless 등은 태도란 경험의 잔재(residium)로서 대상물에 대해 특수한 양태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후천적으로 획득된 경향이라고 하였다(차배근, 1992). 또한 태도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어떤 상징, 대상 및 세계관을 평가하는 개인의 속성을 말하며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 및 풍부한 지식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속해있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라 형성되고, 어떤 상황이나 영향 아래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박경희, 1995).

Smith(1956)는 태도가 사회적응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즉, 태도가 현명한 표현을 통해 자기-타인 관계를 매개하고 더 나아가 특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소속집단에의 동일시를 증진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시켜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짐으로써 소속집단과 동일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이민영, 1999 재인용).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회주의의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북한의 가치관이나 규범에 따라 형성한 태도 중 일부는 남한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해서 살아가기에 장애가 되는 갈등의 요인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들은 북한에서 자유와 자본주의가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요소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유나 자본주의, 남한 사회, 남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남한 사회에 편입된 이상 남한사회나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는 남한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살아가는 데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태도 변인으로 연구자는 남한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 조급한 태도, 책임감 등을 선정했다. 이는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행연구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쓴 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의 일부는 인내심이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증으로 연결된다(윤여상, 2001)고 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 역할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고 있다(윤여상, 2001)고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기대성향은 성공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자신의 역할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괴리감을 느껴 좌절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조금한 태도가 남한사회 적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책임감 있는 태도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매우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태도 중의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식 책임감에 길들여져 당에서 내리는 명령대로만 책임을 수행하는 관습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 이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의 개념은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즉, 북한에서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책임감과 남한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의 수준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가 인터뷰한 북한이탈주민 중의 한 명은 택배회사에 취직한 적이 있는데 수신자가 부재중일 때 수신자와 끝까지 연락을 취해서 물건을 수신자의 손에 넘겨주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책임이었다고 고백했다. 더욱 어려웠던 일은 수신자가 부재중이어서 그냥 돌아왔을 때 상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호통을 쳤던 일인데 그 집 앞에 갔다 왔는데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는 자신이 북한출신이라서 상사가 일부러 무시하느라 그러는 줄 알았다고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감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인식의 측면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주요한 변인 중의 하나인데 남한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메카니즘을 잘 알아야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과거에 북한에서 교육되고

사회화된 내용 그대로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있으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사회에서는 누군가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자유주의 하는 놈, 자본주의 하는 놈”이라고 질타하며 지적을 한다(강철환, 2004)고 한다. 즉 북한사회에서 가장 나쁜 행위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자본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사회만의 고유한 사고방식이며,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에 이러한 기존의 이념에서 길러진 현실인식의 태도는 유해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책임감, 현실인식 그리고 조급성이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4. 사회적 지지 체계와 적응

사회적 지지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 사회환경 또는 생태계 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사람들을 연결하는 망 속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윤영주, 2001).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지지 역시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적응(Adelman; 1988, Fontain; 1986) 및 신체적 건강(Schwarzer, Jerusalem & Hahn,1994)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민자 및 난민의 정신적 증상의 출현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Lin, Tazuma & Masuda, 1979; 정진경 & 양계민, 2004에서 재인용). 미국 내 중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Lin et al., 1979)와 역시 국내 동부유럽인 이주자에 대한 연구(Biegel et al., 1989)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신과적 증상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소래(1997)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적응

자기존중감(self-esteem)은 한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인식,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뢰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김정규, 2003).

자기존중감은 다른 용어들과 혼용되어 쓰이는데 예를들면, 자아개념, 자기수용, 자아정체감, 자기평가 등이다(Harter, 1989; 서정미, 2004에서 재인용).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우울증, 자기 파괴적 행동, 병리적인 행동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한다. 또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불안, 우울 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현희, 2004 재인용).

이렇듯 자기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느긋하고 편안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정서안정성은 정서적 차원에서 자기를 반성해보는 차원이다. 이는 개체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행동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즉, 정서안정성이 높은 개체는 주변 환경의 변화나 외부 자극에 의해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데 반해 정서안정성이 낮은 개체는 쉽게 주변 환경과 상황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의 고유한 행동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수가 있다(김정규, 2003).

정서안정성이 감정의 기복과 예민성과 관련이 있고 정서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주변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소신있게

추진하는 즉, 내적인 동기에 의해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서안정성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6. 연구가설

1) 성격요인과 적응

1-1) 자아강도의 성격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2) 도덕성의 성격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3) 대담성의 성격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1-4) 자기통제의 성격 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 현실대처 태도요인과 적응

2-1) 조급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2) 책임있는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2-3) 현실인식의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3) 사회지지체계와 적응

3-1) 사회지지 체계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 졌다. 대상자 선정은 만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5년 9~10월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7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0부가 수거되어 85%의 수거율을 보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분석에 적절하지 못한 41case를 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129 case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생활여건 질문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사회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험자의 성별, 연령, 입국일자, 출생지, 출신성분, 탈북 형태, 배우자 유무, 직업의 유무 소득 수준 등을 묻는 질문지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성격검사(16PF)

성격검사로써 Cattell이 자신의 성격이론에 따라 개발한 Cattell의 16PF를 표준화한 한국판 16PF(염태호, 김정규, 2003)중에서 자아강도, 도덕성, 대담

성, 자기통제성 등의 척도를 묻는 문항을 선별해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신뢰도는 각 척도별로 Cronbach's α =.660에서 Cronbach's α =.770으로 나타났다.

3. 자아가치관검사

Deusinger의 '자아가치관'과 Battle의 문화공평 자기존중감 검사(culture free self-esteem inventory)에 근거하여 김정규(2003)가 제작한 척도인 자아가치관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구성은 자기존중감 척도, 정서안정성 척도, 대인관계능력 척도, 문제해결능력 척도, 대인신뢰감 척도의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된 전반부 자아가치관 검사(86문항)와 현재의 자신에 대해 지각된 자아가치관과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가치관 사이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후반부 자아가치관 검사(76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후반부 자아가치관 검사를 제외한 86문항의 전반부 자아가치관 검사 중에서 자기존중감 척도 와 정서안정성 척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신뢰도는 각 척도별로 Cronbach's α = .765에서 Cronbach's α = .858로 나타났다.

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Derogatis 등(1972)의 간이정신진단검사-개정판(SCL-90-R)을 김광일 등(198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간이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9개 증상차원의 총 9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상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9개의 증상 척도는 신체화(somatization;SOM), 강박증(obsessive-compulsive;O-C),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I-S),우울(depression;DEP), 불안(anxiety; ANX), 적대감(hostility; HOS), 공포불안(phobia anxiety;PHOB), 편집증

(paranoid ideation;PAR) 그리고 정신증(psychotism;PSY)이며 이외에 3가지 전체지표가 추가되어 있는데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 표출 증상합계(positive symptom total;PST) 그리고 표출증상심도지수(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PSDI) 등이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7$ 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지지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이소래(1997)가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토대로 연구자가 다시 편집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제적 지지,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지지,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지지, 가족의 지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9$ 로 이소래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 = .978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삶의 만족척도

본 연구에서는 1994년 양옥경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 척도지를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에 맞게 본 연구자가 다시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서 자아감, 대인관계, 의·식 및 주거환경, 직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9$ 로 나타났다.

7. 현실대처 태도에 관한 질문지

현실대처 태도에 관한 질문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책임감 정도, 조급성 정도, 남한사회에 대해 어떠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자 제작되었다. 문항은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 북한이탈주민과 가깝게 생활하는

남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저술,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쓴 수기 등의 분석을 통해 제작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연구 전문가이자 척도 개발자인 교수님의 자문에 의해 선별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5$ 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대한 변인으로서 성격요인, 태도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들 변인들이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또한 이들 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적응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 사회 지지체계 중에서 종속변인인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이들 요인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나이, 성별, 소득수준, 직장 유무, 배우자 유무, 출생지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성격, 현실대처 태도 및 사회지지에 따르는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및 정서안정성,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피험자의 성격, 태도 및 사회지지체계가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그

리고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기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피험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출생지, 배우자 유무, 입국 형태, 월평균 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전체 연구대상 129명 가운데 여성이 74명, 남성이 55명이었고 연구대상의 연령은 20세에서 74세까지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였다.

통일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통일부,2005) 여성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은 전체 연구대상의 57%로 현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전체 연구대상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대가 27.1%, 30대가 48.8%, 40대가 18.6%, 50대가 3.1%, 6~70대가 2.3%의 비율을 보였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통일부, 2005) 20대가 27.07%를 차지하고 30대가 33%, 40대가 12.3%, 50대가 4.7%, 60세 이상이 4.9%를 차지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연령분포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설문에 참가하기를 꺼려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설문에 많이 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연구대상을 출생지 별로 살펴보면 역시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함경남도 출신이 전체 피험자의 65.9%를 차지했고 함경북도가 9.3%,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합쳐 12.4%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할 때 가족과 함께 온 경우

표 2.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변수	구분	빈도수	백분율(%)
성별	여성	55	42.6
	남성	74	57.4
나이	20대	35	27.1
	30대	63	48.8
	40대	24	18.6
	50대	4	3.1
	60대 이상	3	2.3
학력	인민졸	7	5.4
	고등중졸	93	72.1
	대졸	27	20.9
북한에서의 생활수준	부유	16	12.4
	중간	49	38
	조금 어려움	38	29.5
	매우 어려움	26	20.2
배우자의 유무	있음	47	36.7
	없음	81	63.3
소득수준	50만원 미만	58	49.2
	50~100만원	38	32.2
	100~150만원	17	14.4
	150~200만원	5	4.2
입국시기	최근(2004~2005)	44	34.1
	중반(2001~2003)	72	55.8
	초기(1995~2000)	13	10.1

가 40.3%, 단독으로 입국한 경우가 58.9%를 차지하였다.

표3. 정신건강, 만족도와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성격, 현실인식 태도, 사회지지 간의 상관표

	1	2	3	4	5	6	7	8	9	10	11
1 정신건강지수											
2 만족도	-.451**										
3 자존 및 정서	-.549**	.641**									
4 자아강도	-.598**	.527**	.738**								
5 도덕성	-.215*	.345**	.424**	.386**							
6 대담성	-.311**	.384**	.500**	.575**	.312**						
7 자기통제성	-.214*	.447**	.439**	.381**	.789**	.384**					
8 현실인식	-.258**	.449**	.368**	.371**	.145	.272**	.261**				
9 조급성	.219*	-.347**	-.421**	-.384**	-.377**	-.168**	-.492**	-.479**			
10 책임감	-.278**	.449**	.498**	.403**	.338**	.292**	.473**	.565**	-.562**		
11 지지도	-.456**	.631**	.635**	.443**	.254**	.392**	.332**	.386**	-.375**	.343**	

**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성격 요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의 관계

표3은 본 조사에서 측정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도(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 그리고 성격, 현실인식 태도, 사회지지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4개의 성격변인들은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의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여기서 정신건강지수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를 말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강도, 도덕성, 대담성, 자기통제성과 같은 성격의 하위 변인 중 특히 자아강도($r=-.598$ $p<.001$)와 대담성($r=-.311$ $p<.001$)이 정신건강지수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4가지 성격변인 모두가 삶의 만족도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4개의 성격변인 모두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3. 현실대처 태도 요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의 관계

표 3을 보면 현실대처 태도의 3가지 하위 변인 즉 조급성, 책임감, 현실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인식($r=-.258$ $p<.001$) 과 책임감($r=-.278$ $p<.001$)이 정신건강지수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도와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관해서는 현실인식과 책임감 요인과 $p<.001$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조급성과는 $p<.0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4. 사회지지체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표 3을 보면 사회지지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지지체계는 정신건강지수($r=-.456$ $p<.001$)와 높은 부적 상관을, 삶의 만족도($r=.631$ $p<.001$) 그리고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r=.635$ $p<.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5.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표 4와 표 5, 표 6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4.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정신건강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2	F
요인	자아강도	-.066	.365	-.518	-6.508	.000	.384	37.792
	지지도	-.008	.004	-.182	-2.284	.000		

*Adjusted R square=0.374

표 4에서 종속변인은 SCL-90R의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자아강도 요인과 사회적 지지도 요인이 정신건강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요인이 전체 변량의 37%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37.792($p<.001$)이다. 즉, 자신만만하고 현실적이며 여유있고 철저하며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일관성있고 감정을 다스리는 성격 특징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강한 자아강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개인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을 하던 정신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의 생활방식에 매우 만족

스러워 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Krug, 1981)를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체계 요인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지지가 스트레스의 감소와 억제,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이소래, 1997)를 지지하는 것이다.

표 5.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 ²	F
요인	자아강도	.457	.144	.232	3.177	.002	.533	45.572
	책임감	.740	.268	.192	2.762	.007		
	지지도	.344	.050	.492	6.942	.000		

*Adjusted R square=0.521

표 5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성격변인 중의 자아강도 요인, 태도변인 중의 책임감 요인,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 가지 요인이 전체 변량의 52%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5.57(P<.001)이다. 즉,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책임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안정성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도	R ²	F
요인	자아강도	1.701	.176	.562	9.670	.000	.671	123.578
	지지도	.426	.062	.397	6.827	.000		

*Adjusted R square=0.666

표 6은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기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자아강도 요인과 사회적 지지도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 요인이 전체변량의 67%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23.58($p < .001$)이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과 태도 그리고 사회지지체계가 이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격과 태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지지체계가 이들의 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적 요인 중에서 자아강도, 도덕성, 대담성 그리고 자기통제가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요인 중에서 자아강도, 도덕성, 대담성 그리고 자기통제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가설 1-1, 1-2, 1-3, 1-4는 지지되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현실대처태도 중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현실인식, 책임감이 이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상관이 높고 또한 조급성이 이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책임감, 그리고 현실인식의 정도가 그들의 적응과 상관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조급성은 적응과 부적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1, 2-2, 2-3은 지지되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지지체계가 남한사회의 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3도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강도(ego strength) 요인과 사회적 지지체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일관성 있는 성격특징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미성숙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정신적으로 나약하며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자존심을 잘 상하며 참을성이 부족한 성격특징에 비해서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과 또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아강도,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강도와 사회적 지지체계인 것 외에 책임감 또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속을 잘 지키고, 남한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일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존중감 및 정서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역시 자아강도 요인과 사회지지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강도와 사회지지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존중감 즉,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인식,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강도와 사회지지체계가 정서안정성 즉, 정서의 안정과 주변의 변화에 별로 영향 받지 않는 행동의 일관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현실대처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지지체계가 북한이탈주

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차 요인을 통해 적응과 정신건강상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남한사회 적응에 위험요인이 되는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성격요인과 태도요인을 규명하고 그와 함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고 위험집단 선별 및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잘하도록 도우려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성격과 태도를 잘 구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성격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북한이탈주민의 태도가 새로운 사회를 수용할 자세가 되었는지,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자신에 맞는 역할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을 찾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함께 심리평가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와 상담이 수행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성격과 태도 등에 관한 평가와 이해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보다 먼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 및 직장에서의 적응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이 향상되리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구직을 위한 기술교육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었을

지는 모르나 성격 및 태도 요인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사회지지체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계망 구축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적절한 사회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관심과 지지가 주어졌음에도 북한이탈주민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신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심리 평가와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의 크기가 작았던 점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감안할 때 통계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표집을 통한 연구가 바람직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 간의 문화적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의 경우 일방이 일방에게 동화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만일 통일이 되거나 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들에게 남한사회에 맞는 인간형이 되기를 희망하는 형태의 적응 모형 보다는 쌍방의 문화가 적절히 수용되는 방식의 적응모형이

유용하리라고 본다. 이런 점을 제고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참고 문헌>

- 강상년 (2004).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강성록 (2001). 탈북자의 외상척도 개발연구. 연세대 대학원.
- 강철환 (2004). 수용소의 노래. 도서출판 시대정신.
- 김상순, 정호진 (1989).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적응. 경북의대지
- 김영만 (2003). 탈북자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정규 (2003). 16PF의 이해와 활용 한국가이던스.
- 김정규 (2002). 자아가치관 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
- 김정규 (1995).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 이해. 성신여대 사회과학논총.
- 김정인 (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진도 (199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선방안.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 김현희 (2004). 자아가치관 검사의 타당화 및 임상적 유용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대균 (2001).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 독고순 (1999).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건영 (200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경희 (1995). 사회적 지지가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서정미 (2004). 북한이탈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응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손문경 (200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오영희 (1994). 덕성여대생들의 적응상태와 적응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논문집.
- 오혜정 (1996).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대학원.
- 윤성아 (2004).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실태 및 문제해결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여상 (2002). 탈북자 적응에 관한 태도변용이론의 적용 가능성. 대한정치학회, Vol.10 No.1.
- 윤여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 윤인진 (1999).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지, Vol.33, No.3
- 윤인진 (1999).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대책.
- 윤인진 (2000). 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분석. 통일논총.
- 이기영 (2000). 남한거주 탈북자의 정착과 사회적응 지원방안. 통일논총 제 18호.
- 이기영 (1999). 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갈등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Vol.6, No.1.
- 이민영 (1999).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빈곤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윤미 (2003). 노인복지전문가의 노인에 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덕룡 (2000). 탈북자 적응의 사회경제적 문제. 통일연구, Vol.4 No.1. 통일백서; 2005, 통일부.
- 전우택 (1997).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권
- 전우택 (2000).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통일연구, Vol 5, No. 1.
- 전우택, 윤덕룡, 민성길. (2001).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Vol.40 No.2.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 심리학회지, 23권 1호.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7 No.2.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6 No.1.
- 조용관 (2004).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 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 진용택 (2003).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관동대 대학원.
- 차배근 (1992). 태도변용이론. 나남.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호.
- 홍지영 (1995).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창형, 전우택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Eastwood Atwater (2002). 적응심리. 한국심리상담연구소.

Berry,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Sage.

Jung,C.,G.,Grendwerk (2001).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Jung,C.,G.,Grendwerk (1998).분석심리학-C.G.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Rebeca, L,Shiner(2000). Linking Childhood personality with Adapt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James McKenzie. et al.(2000). Neuroticism and academic acheiv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ABSTRACT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Kye-Soon, Kim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coping attitud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surrounding them, associate their adjustment in South Korea.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29 North Korean refugees to find out about their mental health, self-concept, satisfaction with life, personality, coping attitude, and social support system.

The study found that 1) among the personality factors, ego strength, super ego, boldness, and the degree of self-control significantly associated the North Korean refugees' mental health and their adjustmen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2) among the coping attitudes, impetuosity, responsibility, and perception of reality significantly associated the North Korean refugees' mental health and their adjustmen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3) the social support system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their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 addition, among the personality factors, the strength of ego strength, among the coping attitudes, responsibility and the social support system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fluenced the North Korean refugees' mental health and their adjustmen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psychological traits (personality and attitude) of individual North Korean refugees influenced each person's adjustment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consequently, pointed to the existence of a specific causal relationship.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선을 헤치고 남한에 내려와서 살아가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남한에서의 생활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시더라도 언젠가는 극복해서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자세히 읽고 답을 해주시면 연구를 하는 데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각 문항에 정답은 따로 없으니, 제시된 문항을 읽으시고

귀하의 상황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 심리 연구실

지도교수 김정규

석사과정 연구원 김계순

누구나 자신의 생활방식이 있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은 따로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아래의 다섯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O표 해 주세요.

<보기>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중간이다 4. 그렇다 5.아주 그렇다

<보기>

문제 :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다.

답 : 만일 당신이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라면 아주 그렇다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쉽게 감정이 잘 상한다.	1	2	3	4	5
2.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꺼내겠다.	1	2	3	4	5
3. 자주 긴장되고 불안하다.	1	2	3	4	5
4. 사람들이 내 의견을 존중한다.(남한사람이든 북한사람이든)	1	2	3	4	5
5. 나는 내 친구들 보다 못하다.	1	2	3	4	5
6. 나는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다	1	2	3	4	5
7. 나도 다른 사람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다.	1	2	3	4	5
8. 때로는 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9. 친구들의 성공소식을 들으면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다.	1	2	3	4	5
10.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보면 피해버린다.	1	2	3	4	5
11. 나는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본다	1	2	3	4	5
12.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1	2	3	4	5
13.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해버린다.	1	2	3	4	5
14. 나는 대체로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있다.	1	2	3	4	5
16.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17. 나는 내 자신이 싫다.	1	2	3	4	5
18. 앞으로 내게 닥칠 일을 해낼 자신이 있다.	1	2	3	4	5
19.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펴기가 힘들다.	1	2	3	4	5
20. 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21. 내 자신에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22.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눅이 들어서 다가가기 어렵다.	1	2	3	4	5
23.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린다.	1	2	3	4	5
24.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다.	1	2	3	4	5
25. 내 문제는 내가 해결 할 수 있다.	1	2	3	4	5
26.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1	2	3	4	5
27.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편이다.	1	2	3	4	5
28.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1	2	3	4	5
29. 할 말이 있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못하겠다.	1	2	3	4	5
30.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판단한다.	1	2	3	4	5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1. 친구와 생각이 달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1	2	3	4	5
32. 이제까지 실패보다는 성공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1	2	3	4	5
33. 혹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봐 신경을 많이 쓴다.	1	2	3	4	5
34.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어준다.	1	2	3	4	5
35.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다.	1	2	3	4	5
36.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아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까지 뭐든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다.	1	2	3	4	5
38.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39. 나는 어떤 일을 결정 할 때 자주 이랬다 저랬다 한다.	1	2	3	4	5
40.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41.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잘 생겼다.	1	2	3	4	5
42. 나는 별로 친구가 없다.	1	2	3	4	5
43.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많이 의식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44.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할 때 대화에 끼어들기 힘들다.	1	2	3	4	5
45.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46. 생각이 다르면 상대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47. 무슨 일을 해내도 끝까지 해내는 일이 별로 없다.	1	2	3	4	5
48. 사람들의 신뢰를 별로 받지 못한다.	1	2	3	4	5
49. 내가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50. 나는 대체로 행복하다.	1	2	3	4	5
51. 가끔 사소한 일로 잘 빠친다.	1	2	3	4	5
5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2	3	4	5
53. 모임에 나가면 다들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가만히 있다.	1	2	3	4	5
54. 누가 내게 말을 걸어오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55.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56. 어디를 가든 내 밥그릇은 찾아 먹을 수 있다.	1	2	3	4	5
57.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 나를 외면 할 것이다	1	2	3	4	5
58. 나는 대범하지 못하고 너무 예민하다.	1	2	3	4	5
59. 대부분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가 없다.	1	2	3	4	5
60.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겁부터 난다	1	2	3	4	5
61.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도 결정을 잘 못 내리겠다.	1	2	3	4	5
62. 사람들이 나를 좀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1	2	3	4	5
63.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 행동이 많이 좌우 된다.	1	2	3	4	5
64. 친구들에 비해 나는 성공한 편이다.	1	2	3	4	5
65. 웬지 모르게 늘 불안감을 느낀다.	1	2	3	4	5
66. 관계가 나빠질까봐 상대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준다.	1	2	3	4	5
67. 자주 까닭 모르게 우울해진다.	1	2	3	4	5
68. 나도 다른 사람만큼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69.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70.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피하고 싶다.	1	2	3	4	5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71.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5
72.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5
73.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1	2	3	4	5
74.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	1	2	3	4	5
75.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	1	2	3	4	5
76. 비판적인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1	2	3	4	5
77. 다른 사람들만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78.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다.	1	2	3	4	5
79. 나는 내가 남자(여자인 경우는 여자) 인 것이 좋다.	1	2	3	4	5
80.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싶다.	1	2	3	4	5
81. 나는 무엇이든 해낼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82. 내 자신에 대해 종종 창피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83.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건강하고 튼튼하다.	1	2	3	4	5
84. 갑자기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자주 있다.	1	2	3	4	5
85. 나는 대체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1	2	3	4	5
86. 우리 가족들은 내 심정을 잘 이해해 준다.	1	2	3	4	5

◆ 삶의 만족도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드십니까?	1	2	3	4	5
2.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당신만의 것으로 만족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1	2	3	4	5
3. 당신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4. 당신은 일상적으로 입는 옷의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5. 당신이 사귀는 친구의 수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6. 당신은 친구들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십니까?	1	2	3	4	5
7. 당신은 이성 친구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8.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만큼 가족과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1	2	3	4	5
9. 당신은 요즘 신체건강상태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0. 당신은 요즘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1	2	3	4	5
11. 그 문제가 자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까?	1	2	3	4	5
12.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3. 현재 당신의 한 달 수입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4. 일터에서 사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5. 당신의 하루 일과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6. 당신은 만족할 만한 취미 생활이 있습니까?	1	2	3	4	5
17. 당신은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보내는 방법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8. 당신은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9. 당신은 삶에서 때때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1	2	3	4	5
20. 당신은 자신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1. 당신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1	2	3	4	5

◆ 성격에 관한 질문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좀처럼 좌절하지 않는다.	1	2	3	4	5
2. 나는 사람은 좋은데 좀 덜렁거린다는 말을 듣는다.	1	2	3	4	5
3. 모임에 나가면 비교적 사람 앞에 나서는 편이다.	1	2	3	4	5
4. 남과 이야기할 때 생각을 일단 정리하고 나서 말한다.	1	2	3	4	5
5. 가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1	2	3	4	5
6.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1	2	3	4	5
7.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당황한다.	1	2	3	4	5
8. 방은 항상 깔끔히 정리하고 무엇이든 곧 찾아낼 수 있게 해 놓는다.	1	2	3	4	5
9. 내가 계획했던 목표는 항상 달성했다.	1	2	3	4	5
10. 어지럽게 물건들이 널려있는 방을 보면 불쾌하다.	1	2	3	4	5
11.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2.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매사를 잘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13.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거나 섭섭하게 대할 경우가 있다.	1	2	3	4	5
14.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항상 그 일이 옳은 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15.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주눅이 든다.	1	2	3	4	5
16. 무슨 일이든 끝까지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만 안심이 된다.	1	2	3	4	5
17. 남들이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일이 있다.	1	2	3	4	5
18.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1	2	3	4	5
19. 모임에서는 얘기를 하기 보다는 듣는 쪽이다.	1	2	3	4	5
20.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21.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1	2	3	4	5
22. 치밀함과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23. 어떤 모임에도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1	2	3	4	5
24.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항상 신중히 생각한다.	1	2	3	4	5
25. 두고두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도 막상 시작하려면 자신이 없어진다.	1	2	3	4	5
26.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1	2	3	4	5
27.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1	2	3	4	5
28. 일단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편이다.	1	2	3	4	5
29. 일할 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할 수 있다.	1	2	3	4	5
30.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31. 나는 사교술이 좋아서 사람을 잘 사귀는 편이다.	1	2	3	4	5
32.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편이다.	1	2	3	4	5
33. 어수선한 꿈 때문에 깊이 잠을 못 잔다.	1	2	3	4	5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34.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편이다.	1	2	3	4	5
35. 일할 때 다른 사람이 둘러서서 구경하면 거북스럽다.	1	2	3	4	5
36.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37. 남들 앞에서 실수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잊을 수 있다.	1	2	3	4	5
38. 나는 매사에 빈틈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39. 나는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0.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 심리검사

아래 문항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항목으로 모아 놓은 것입니다.

우선 하나 하나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난 7일 동안 당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그런 후에 오른쪽에 있는 다섯 가지 답 가운데 당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대답을 하나 골라서 “0” 표를 하십시오.

질 문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1. 머리가 아프다.	1	2	3	4	5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1	2	3	4	5
3.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1	2	3	4	5
4.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1	2	3	4	5
5. 성욕이 감퇴되었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1	2	3	4	5
7. 누가 내 생각을 조정(조종)하는 것 같다.	1	2	3	4	5
8.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1	2	3	4	5
9. 기억력이 좋지 않다.	1	2	3	4	5
10.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1	2	3	4	5
11.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1	2	3	4	5
12.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1	2	3	4	5
13.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렵다.	1	2	3	4	5
14.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	2	3	4	5
15.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헛소리가 들린다.	1	2	3	4	5
17.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1	2	3	4	5
18. 사람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9. 입맛이 없다.	1	2	3	4	5
20. 울기를 잘한다.	1	2	3	4	5
21.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1	2	3	4	5
22.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1	2	3	4	5
23.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1	2	3	4	5
24.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민다.	1	2	3	4	5
25.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1	2	3	4	5

질 문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26. 자책을 잘 한다	1	2	3	4	5
27. 허리가 아프다.	1	2	3	4	5
28. 하고자 하는 일이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1	2	3	4	5
29. 외롭다.	1	2	3	4	5
30. 기분이 울적하다.	1	2	3	4	5
31. 매사에 걱정이 많다.	1	2	3	4	5
3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1	2	3	4	5
33. 두려운 느낌이 든다.	1	2	3	4	5
34. 쉽게 기분이 상한다.	1	2	3	4	5
35.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하는 것 같다.	1	2	3	4	5
3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38. 매사에 정확하게 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1	2	3	4	5
39. 심장(가슴)이 마구 똥다.	1	2	3	4	5
40.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1	2	3	4	5
41.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42.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1	2	3	4	5
43.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속닥거리는 것 같다.	1	2	3	4	5
44. 잠들기가 어렵다.	1	2	3	4	5
45.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1	2	3	4	5
46. 결단력이 부족하다.	1	2	3	4	5
47. 자동차나 기차를 타기가 두렵다.	1	2	3	4	5
48. 숨쉬기가 거북하다.	1	2	3	4	5
49.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1	2	3	4	5
50. 어떤 물건이나 장소 혹은 행위가 겁이 나서 피해야 한다.	1	2	3	4	5
51. 마음속이 텅 빈 것 같다.	1	2	3	4	5
52.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하다.	1	2	3	4	5
53.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1	2	3	4	5
54. 장애가 희망 없는 것 같다.	1	2	3	4	5
55.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1	2	3	4	5
56.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1	2	3	4	5
57. 긴장이 된다.	1	2	3	4	5
58. 팔 다리가 묵직하다.	1	2	3	4	5
59.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1	2	3	4	5
60. 과식한다.	1	2	3	4	5
61.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진다.	1	2	3	4	5
62.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다.	1	2	3	4	5
63.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	2	3	4	5
64. 새벽에 일찍 잠이 깬다.	1	2	3	4	5
65. 만지고 셈하고(세어보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1	2	3	4	5

질문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웬만큼 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66. 잠을 설친다.	1	2	3	4	5
67.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1	2	3	4	5
68. 다른 사람들 에게는 없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다.	1	2	3	4	5
69.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1	2	3	4	5
70. 시장이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하다.	1	2	3	4	5
71. 매사가 힘들다.	1	2	3	4	5
72.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1	2	3	4	5
73.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1	2	3	4	5
74. 잘 다룬다.	1	2	3	4	5
75.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무섭다.	1	2	3	4	5
76.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77.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낀다.	1	2	3	4	5
78.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1	2	3	4	5
79. 허무한 느낌이 든다.	1	2	3	4	5
80.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81.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다.	1	2	3	4	5
82. 사람들 앞에서 쓰러질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83. 그냥 놓아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 같다.	1	2	3	4	5
84. 성문제로 고민한다.	1	2	3	4	5
85.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86.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1	2	3	4	5
87. 내 몸 어딘가가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8. 늘 남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1	2	3	4	5
89.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낀다.	1	2	3	4	5
90. 내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질문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한에서 주는 정착금의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망했었다.	1	2	3	4	5
2. 나에게 남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5.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실력을 쌓아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평소 숨을 쉴 적에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8.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고 또 배우고 있다.	1	2	3	4	5
11. 나의 외모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1	2	3	4	5
12.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4. 나는 컴퓨터 사용을 잘한다.	1	2	3	4	5
15. 나는 인상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16.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7.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다.	1	2	3	4	5
18. 나는 인터넷 사용을 잘한다.	1	2	3	4	5
19. 나는 낙천적인 성격이다.	1	2	3	4	5
20.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에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가 있다.	1	2	3	4	5
21. 나는 미래를 위해 저축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22. 나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23. 나는 적극적인 성격이다.	1	2	3	4	5
24. 실직이 되었을 때 직장을 알아봐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25. 나는 탈북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다.	1	2	3	4	5
26. 나는 남한 사람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1	2	3	4	5
27. 나는 부지런한 편이다.	1	2	3	4	5
28. 나의 어린 시절은 단란한 편이었다.	1	2	3	4	5
29. 남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1	2	3	4	5
30. 나는 지금 믿을 만한 친구가 많은 편이다.	1	2	3	4	5
31. 나는 남한 사람들과 잘 지낸다.	1	2	3	4	5
32.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친한 친구와 토론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33. 북한에서 취득한 대학, 전문학교 등의 자격증이 남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 현실대처에 관한 질문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한에 들어온 이상, 나도 이제는 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나는 만족스러운 미래를 위해 지금 열심히 인내하고 있다.	1	2	3	4	5
3. 남한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어서 상대하기가 싫다.	1	2	3	4	5
4.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5. 일확천금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중간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남한 사람들은 예절이 너무 없다.	1	2	3	4	5
7. 남한 사람들은 나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1	2	3	4	5
8. 남한 사회에서는 편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9. 한국사회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1	2	3	4	5
10.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1	2	3	4	5
11. 한 푼 두 푼 벌어서 언제 잘 사나 하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2.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1	2	3	4	5
13. 남한 사회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나 하기에 달렸다.	1	2	3	4	5
14. 나는 미래를 위해서 곳은일도 마다않고 뛰어드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남한에서의 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 한다.	1	2	3	4	5
16. 돈을 벌려면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1	2	3	4	5
17. 북한에서 살 때가 차라리 더 좋았던 것 같다.	1	2	3	4	5
18. 남한에서 살러니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1	2	3	4	5
19. 남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	1	2	3	4	5

◆ 생활여건 질문지

다음 질문에 대해 “0”표로 대답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남성()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세)
3. 귀하의 출생지는? (도 군)
4. 귀하께서 북한에서 주로 살았던 곳은? (도 군)
5. 귀하께서 남한에 들어오신 때는? (년 월)
6. 귀하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은?
 - ① 인민학교 졸업……()
 - ② 고등중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해외유학……()
7. 귀하께서는 북한에서 당원이었습니까?
 - ① 당원이었다……()
 - ② 당원이 아니었다……()
 - ③ 가족 중에 당원이 있었다……()
8. 북한에 있을 때 귀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9.북한에 있을 때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이었습니까?

- ① 아주 잘 살았다……()
- ② 중간 수준 이었다……()
- ③ 조금 어려운 형편 이었다……()
- ④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10. 귀하께서는 남한에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오셨습니까?

- ① 혼자 왔다……()
- ② 가족들 (누구누구)과 함께 왔다……()

11. 귀하께서 남한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먹고 살기 힘들어서……()
- ②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더 잘 살아 보려고……()
- ③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서……()
- ④ 먼저 남한에 온 가족의 권유로……()
- ⑤ 기타……()

12. 귀하는 현재 직장에 나가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학생이다 ()

13. 귀하가 남한에서 직장에 다닌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년 월)

14. 현재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평균 50만원 미만……()
- ② 평균 50만원~100만원 미만……()
- ③ 평균 100만원~150만원 미만……()
- ④ 평균 150만원~200만원 미만……()
- ⑤ 평균 200만원 이상……()

15. 귀하께서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